

월/요/광/장

정찬용



사람의 일은 참 예측하기 어렵다. 참어...
정부는 인사수석이 되기 전까지 광주·전남 관광산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필자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가 될 줄은 몰랐다.

이들이 내게 준 확신은 광주·전남은 세계적 관광레저지역이 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광주·전남의 자연과 문화라는 두 자원이 모두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광주·전남 관광의 미래

구 경정을 찍는 것으로 유명한 세계적 사진가 베르트랑 안은 내게 광주·전남의 남해안은 자기가 본 해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평가와 달리 현실은 어렵기만 하다. 무엇보다 광주·전남의 관광 인프라는 초보단계다.

그럼에도, 광주·전남의 관광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7천억원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 중 경남, 강원 다음으로 세 번째이다. 현재의 열악한 관광 인프라를 고려해본다면 광주·전남 관광산업이 가진 잠재력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하게 하는 성적이다.

이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 하나하나가 정말 절경이다. 압해대교의 개통 덕에 배로 25분이면 간다. 사실 광주·전남 곳곳이 이런 숨은 보석들이다. 나는 광주·전남 관광레저산업의 미래는 이 보석들을 잘 캐어주는 데 있다고 본다.

이용 관광레저 리조트 벨트는 거점 개발을 통해 관광복토지를 연 1천만 관광레저도시로 만든 대표적 사례이다. 우리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관광벨트를 만든다면 동북아 관광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흔히 누가 이곳에 투자하겠다는 말을 듣고 있다. 당장은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미 계획이 서 있거나 실행중인 서남권종합발전계획 협의의 관광레저도시, 여수지역의 관광레저단지 등을 전세계 관광레저 트렌드에 맞는 수준의 큰 그림을 그려서 잘 추진하면 투자자는 반드시 모여들게 마련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이정엽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많은 사람은 자신이 옳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물론 진실을 밝혀야 하는 사건도 있겠지만, 비슷한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판사들로서는 판결만을 위한 심리보다 당사자가 알고 싶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조정을 시도해보곤 합니다.

만히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보고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를 생각해 보면, 다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줄지 않을까요? 전체 국민 간의 반목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산출하여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될 텐데, 그 돈을 우리 사회에 고투 분배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고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양보의 가치

자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요. 이런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은 판결에 의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분쟁해결의 방법과 내용도 판결과는 많이 다르게 됩니다. 법률에 정해진 증거에 기초해 사실을 인정하다 보면, 어떠한 사건은 '진실'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관에 의해 최종적으로 '진실'이라고 선언되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생각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분쟁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국민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 분쟁이 적은 것이고, 두 번째는 분쟁이 생가더라도 합의에 의해 빨리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난 50년을 볼 때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한 잠재력과 열정을 가진 국민이 화합하기를 한다면 지금까지처럼 세계로 계속 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여름, 시원 이슈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과 자신의 생각과 같도록 설득하려고만 하는 마음을 갖기 전에 자신이 양보하고 상대방도 양보해 상상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 그저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의 비용을 줄이는 일이 되고 조금이나마 행복한 나라가 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요? (광주지방법원 판사)

기고

이경훈



요즘 고유가와 물가 때문에 가게 소비생활에 많은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기 위해 웬만한 거리는 걷고 먹고 싶어도 참는 등 소비생활도 줄여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때에 가정에서 부담하고 있는 통신비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통신비 재테크를 실천한다면 가게 생활비에 적잖은 보탬이 될 것이다. IT강국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인터넷과 휴대전화도 널리 보급되면서 일반 가정에서도 첨단 정보통신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가정마다 집

집값할 수 있다. KT에서도 각 가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집전화, 인터넷, 휴대폰 등을 하나로 묶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KT 윈더팩'이라는 결합상품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휴대전화의 경우 3년 약정시 기본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유·무선 통신을 융합하는 'KT 윈더팩'이라는 결합상품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휴대전화의 경우 3년 약정시 기본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유·무선 통신을 융합하는 'KT 윈더팩'이라는 결합상품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휴대전화의 경우 3년 약정시 기본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계 통신비 재테크

전화와 인터넷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도 개인마다 이용하고 있다.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평균 통신요금을 계산해보면 기본료와 통화료를 포함해 한 달에 17~18만원은 족히 나온다. 이러한 통신요금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각종 요금할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최근 유·무선 통신을 융합하는 결합상품 서비스가 그 중 하나다. 한 달에 평균 17~18만원의 통신요금을 내는 가정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대 월 5만원, 연간 60만원 정도를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계약시 약정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가입자 본인의 동의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머지않아 하나의 네트워크로 유·무선 통신은 물론 방송까지 융합되고 하나의 단말기로 모든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통신 사업자들의 혁신적인 원가 절감과 통신요금 결합상품 활성화로 소비자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이 덜어지면 하는 바람이다. <KT 광산지사 경영혁신팀>

세계적 우수식품 김치, 맛 세분화·표준화 절실

미국의 유명한 건강 전문지 중 '헬스'라는 잡지가 있다. 식품에 관해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이고, 미군에 들어가는 식수조차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생수가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 공수하는 것만 먹는다는 미국이다. 그 미국에서 나오는 유명 건강 잡지가 얼마 전 김치를 세계 5대 건강음식 중 하나로 선정했다. 참으로 반갑고도 기쁜 일이다. 김치는 항(抗)산화, 항노화, 항암성, 항비만 등의 기본적 기능은 물론 김치가 익어가면서 유기산, 비타민B, 비타민C, 그리고 기타 생리활성 물질까지 생산하는 완전식품이다. 하지만 이 같은 김치의 우수성을 노리고 일본과 중국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 이들을 이기려면 순한 맛, 약간 매운 맛, 보통 매운 맛, 매운 맛, 대단히 매운 맛 등 맛의 정

도를 구분해 골라서 먹을 수 있게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얼마나 익었는지도 구분하는 미숙성, 적당히 숙성, 과숙성으로 나눠 먹는 사람의 입맛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내의 소비사 특성에 따라 맞춤형 김치를 공급할 수 있고, 그것이 김치의 수출 증가와 세계화를 앞당길 것이다. 광주시내 음식점 중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한식당과 호텔을 중심으로 이런 성숙도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해서 외국인들이 더 자기 입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듯하다. 그저 앉아서 김치의 세계화를 구호모만 외칠게 아니라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 스스로 시장을 열고 개척해 나가자. <김성준·광주시 서구 회장동>

피서지 계곡서 설거지, 물양심의 극치

여름휴가 피크다. 전국의 산과 계곡, 바다에는 피서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특히 산과 계곡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한다. 이들은 산 입구에 걸려있는 취사금지 횡단막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문제는 음식을 먹고 난 뒤 계곡에서 곧바로 설거지를 한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맑은 계곡물에 고기 기름이 동동 떠다니고 심지어 먹다 남은 고기까지 떠다니 피서객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한다. 고기 굽는 장비와 양

념그릇 등을 씻기 위해 세계까지 사용해도 집까지 오염시킨다. 그들이 더럽힌 계곡물 아래에서는 또 다른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고 음식을 하는데 사용한다. 자연을 더럽히고 다른 피서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빙실적 행위는 제발 삼가했으면 한다.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지는 못할망정 악취를 풍기는 오염물질을 내버려두어야 되겠는가. <박옥희·광주시 북구 우산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시설

농가 소득 1년 새 3분의 1로 추락하다니

면세유·사료·비료 가격 급등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시설·축산 농가 소득이 작년보다 30~80%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농촌경제가 초 고유가 및 원자재가의 직격탄을 맞으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가 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 및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올들어 무려 96%나 올랐다. 복합비료는 2배 이상(123%), 배합사료는 30% 각각 급등했다. 이 같은 생산비의 급등으로 올해 시설·축산 농가의 소득은 지난해에 비해 39% 급감한 10a당 연간 488만2천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 농가의 소득 감소 폭은 훨씬 크다. 사료값 폭등으로 소 한마리당 소득은 33%, 돼지는 57% 각각 줄었다. 닭의 경우는 무려 82%가 감소했다.

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유류 소비가 많은 어업소득도 작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농어촌 경제는 붕괴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산비의 급등으로 소득은 반 토막이 난 상태에서 각종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등 2중, 3중고를 겪으면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외국인 농축산물의 수입이 붓물 터지듯 밀려들고 있고 고유가 추세도 상당기간 지속될 추세이기 때문이다. 한계상황에 다다른 농어업을 더 이상 방치해서 안 된다. 최근 국제 곡물가의 폭등에서 보듯이 세계는 '식량 자원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곡물 자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가 농어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정부는 농어업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장단기 회생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금강산 사태 북한군 담화 납득 안된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20여 일 만에 사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군부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자신들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경하고 일방적인 입장만 보여 실망스럽다. 북한은 어제 '인민군 금강지구 군부대 대변인의 특별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관한 남한 정부의 대응조치를 "무분별한 반공화국(북한) 대결 소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북한에 체류중인 불필요한 남측 인원들을 모두 추방하고, 금강산지구에 들어가는 남측 인원과 차량에 대해 군사분계선 통과를 보다 엄격히 제한·통제하며, 앞으로 금강산지구의 관광지와 군사통제 구역 안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강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군부의 이 같은 담화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상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생애에 가까운 주장만 펼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은 누가 보아도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가정 주부인 무고한 중년여성이 관광지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서도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인 것이다. 금강산 사태는 남북 당국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상부터 규명하고 신변 안전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사태해결의 첩경이다. 더욱이 북한군이 관광객인 줄 알면서 조준사격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과 한마디 없이 강경장담만 되풀이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북한은 더 이상 억지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사건 진상조사부터 응해야 한다. 정부도 북한의 태도에 일회일비할 것이 아니라 냉철하고 신중하게 대응해 남북 간에 불필요한 긴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기존 질서에 반하는 글을 썼던 이들이 에게 덕된 시련은 동서고금을 막론한다.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제국쇠망사'나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의 근간이 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저작은 오랫동안 금서였다. 타키투스의 저작 '게르마니아'는 독일인들의 민족 정신을 고취시켜 종교개혁의 근거를, '연대기'는 절대 군주에 대한 저항을 담았다는 이유에서다. 갈릴레오는 지동설의 요지를 담은 '천문 대화'라는 책을 썼다. 그는 교황청 재판에서 파문됐고 책은 금서처분당했다. 법정에서의 '지동설 부인'을 통해 목숨은 건졌지만 '천문 대화'는 200년이 지나서야 금서에서 풀렸다. 서양의 역사는 금서의 역사다. 서구 문화사를 알려면 교황청의 금서목록을 읽으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15세기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기술이 개발되면서 서지술을 독점했던 권력(교회와 왕실)의 권능이 쇠퇴해갔다. 권력의 입장에서 불온 출판물의 간행은 필연적으로

금서목록으로 귀결됐다. 동양도 마찬가지다. 진(秦) 시황제의 분서갱유가 대표적이다. 연로가 트였다. 조선시대에도 금서는 많았다. '조선의 흥된 위험한 책'을 쓴 이진희 아주대 교수는 "흥통한 책일수록 시대와 불화한 금서가 되고 저자들은 불행한 운명을 맞았다"고 말했다. 성리학을 지키기 위해 나머지 사상을 배척하고, 지식 확산의 통제를 위해 책의 유통을 막은 것이었다. 한국 현대사 또한 금서의 연속이었다. 소설가 남정현을 구속시켰던 '본지'(竊地) 사건 이후, 김지하의 '오적', 현기영의 '순이 삼촌', 이산하의 장시 '하란산'이 작자의 서야 금서에서 풀렸다. 국방부가 최근 친북·반정부·반미를 담은 23권의 금서목록을 발표할 이후 오히려 이들 책 판매가 급증했다고 한다. 금서 선정의 기준은 차치하고, 금기는 반드시 호기심을 낳는다는 고금의 진리를 입증한 셈이다. /주승호 사회1부장 jsoh@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